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무료 건강강좌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6월 10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고창병원 빈홍진 박사를 초청해 '협심증과 심장질환'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열었다.

작년 복지관 이용자를 상대로 실시한 욕구조사에서 '건강상식 부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1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여한 건강강좌는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김경림 할머니(74·고창읍)는 "협심증에 대해 알았다. 내일 병원을 찾아 검사하겠다"고 말해 무료 건강강좌의 효과를 보여줬다.

무궁 스님은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높은 호응과 참여율이 향후 지속적인 건강강좌를 개최하겠다. 지역민과 이용자들의 욕구를 계속 살펴 건강강좌 외의 문화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노인 복지 사각지대였던 고창군을 노인복지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항사 템플스테이 실무자 교육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6월 9~11일 해남 미항사에서 '2008년 템플스테이 신규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48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주지스님과 실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교육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소개와 행정업무, 모범 운영사찰과 실무자 사례발표 등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한 교육과 모범 운영사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 운영시스템을 템플스테이에 맞춰 진행해왔다. 미항사에서 많은 것을 습득해 가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2008년 처음 템플스테이 운영 신규사찰로 지정된 중진사를 대표해 실무자교육에 참가한 조영훈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됐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미항사를 시작으로 차기 실무자 교육도 모두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템플스테이도 패키지 시대

호남불교문화원, 제1회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

전국 48개 템플스테이 사찰 중 어느 곳을 찾을까 고민하는 사람, 한 곳에 머물기가 지루한 사람, 모처럼 얻은 휴가 여러 사람 다니며 여러 스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 템플스테이 패키지 등장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의 템플스테이가 한 사찰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해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다면 호남 불교문화원(실장 이준엽)이 마련한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는 6월 25일 고불총림 백양사를 시작으로, 26일 적멸보궁 화엄총림 화엄사, 27일 승보총림 조계총림 송광사, 28일 선림교해 만화도량 대흥사를 찾아 29일 마치는 조계종 전라남도 4본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조계종 본사 네 곳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찰 선지식과 차담을 나누는 것도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만의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백양사에서는 주지 성오 스님을 만나고, 화엄사에서는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현산 스님(화엄사선승선원장) 현산 스님(조계종원로의원) 보선 스님(대중사 회주)

선승선원장 현산 스님과 자야탐구에 대한 차담을 갖는다. 송광사에 머무는 셋째날은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대흥사에서는 회주 보선 스님과 수행 등 대화를 나눈다.

이준엽 실장은 "템플스테이는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체험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장엄한 불교문화속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시간"이라 말했다. 이번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는

그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호남불교에 대한 애정의 결과다.

이 실장은 "백양사, 화엄사 등 전남 지역 4개 조계종 본사에서 하루씩 머무는 것이 남도 4대 본사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큰스님과 차담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산내암자를 순례해 특별한 감동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호남불교문화원의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는 침체된 호남지역 불교에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행사의 참가인원은 15명 이내, 동참비는 40만원이다. (062)383-3538

조동제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와 태권도 만나다

전북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는 6월 7~8일 산사체험과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는 '태권도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제12회 무주 반딧불 축제에의 일환으로 안국사와 무주군이 마련한 이번 '태권도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이 동참했다.

초등학교생 두 아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찾은 김중호씨는 "여년부터 산사체험을 하고 싶던 차에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즐라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모두 산사에서 수련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안국사 이규평 사무장은 "안국사에서 열린 첫 템플스테이로 시설도 부족하고 준비도 미흡했다. 무주군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주 안국사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개최



6월 7~8일 무주 안국사에서 열린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며 태권도 템플스테이를 통한 포교에 기대를 보였다. 한편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을 조성해 많은 태권도인들을 무주군에 유치하고, 안국사가 템

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불교문화강좌

고창에 첫 문화강좌가 시작됐다. 6월 11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불교문화강좌는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지역민들을 위해 준비했다. 개강 첫날부터 70여명 수강생이 등록해 지역민의 관심이 높음을 보였다.

법만 스님은 개강식에서 "불교문화강좌에 등록한 분들은 지역사회와 지역 불교를 이끌 밑거름"이라며, "오늘 처음 품은 뜻을 강좌 끝나는 날까지 유지한다면 큰 깨우침과 성취감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스님은 "변화가 심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 불교와 불자의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운사는 고창 시내에 포교당을 세울 예정이다. 선운사는 경내에 '선운 공동체 문화관'과 석상마애에 종합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고창 지역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가족이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해"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군산 관음사 재곤스님

세계에서 인구 대비 교회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기네스북에도 오른 곳은 군산 시 나운동이다. 군산시민이 항상 즐겨 찾는 월명산 아래 재곤 스님이 주석한 관음사가 자리한다. 관음사에 들어서면 그곳이 바로 도솔천, 지장보살 세상이다. 108 지장보살상이 중생 구제의 원과 함께 도량을 지킨다.

재곤 스님은 1978년부터 30년 넘게 척박한 군산 불교를 지켰다. 스님이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를 창건한 것은 척박한 지역에 불교를 뿌리 내리려는 원에서 시작됐다. 작은 절이라도 생겨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 스님 생각이다. "포교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스님은 나름의 역할이 있고 재가불자도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답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해보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도 처음에는 황무지였다는 것을 모르죠. 군산이 원래부터 불교 황무



소 법회와 군산 비행장 공군 38전대 법회도 재곤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관음사 창건 초기부터 시작했던 어린이 청소년 법회 참가자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등극한 이 이야기는 스님에게 있어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지난 10년간 현충일이면 지역 불자들과 함께 군산 근경 합동묘지를 찾아 추모 법회를 봉행해 왔다. 재곤 스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평화

황무지 개간하듯 군산지역 포교 앞장

지이지만 그렇다고 개간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가족법회는 10년을 훌쩍 넘겼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해도, 내 가족이 불행하면 세상이 불행하다"는 스님은 "내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가족법회마다 재곤 스님이 강조하는 단골 법문내용이다.

스님은 오랫동안 군산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며 군산지역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재곤 스님이 있었기에 군산사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불자들뿐 아니라 군산시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 군산 교도

는 없었다. 호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 불자의 한사람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산시립묘지의 승화원(화장장)에 지장보살상을 봉안해 유족들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할 수 있도록 돕고 매년 우란분절이면 이를 돕는 무연고 영가를 위한 철도재를 지냈다.

재곤 스님은 "일부 불자들이 보시한다며 여기저기 상(相)을 내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말한다. 스님은 "진정한 보시는 그늘진 곳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 달 전 고회를 맞은 재곤 스님, 젊은이 못지 않은 포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이 팔청춘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자판이를 짚으면 곱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된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판소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옵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동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